

보도 일시	2023. 3. 6.(월) 10:00	배포 일시	2023. 3. 6.(월)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홍경의 (044-202-7026)
		담당자	서기관 백석현 (044-202-7027) 사무관 신솔원 (044-202-7028)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개최

- ☐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지방관서의 차질없는 후속조치 및 타업종으로의 확산 노력 당부
- ☐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감독역량 집중 지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10시, 서울고용노동청(5층 컨벤션룸)에서 본부 실·국장, 8개* 대표 청·지청장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경기지청, 강원지청

이날 회의는 본부-지방관서의 노동개혁 주요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27일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원하청 간 자율적으로 이행되도록 해당 지방관서에서 차질없이 지원” 하고, 아울러, “이러한 노사상생의 근간이 되는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과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진”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근로자의 시간주권과 건강권 확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합리한 근로시간 관리 관행을 개선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다.

※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상생과 연대의 노동·산업 생태계 조성]

- 지난 2월 27일 울산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22.10.),
 - 후속조치로 원·하청업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해 온 결실입니다.
- 이번 협약은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조선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증장기 과제까지 총망라한 것입니다.
 -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과 같은 과거형 방식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로 해법을 마련하고,
 -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입니다.
- 협약식에 참석한 한 협력업체 대표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상생협약은 하청직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성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 산업, 공정거래 등 정책을 종합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4월 중 마련하고,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하반기부터는 조선업의 선도 사례를 타 업종으로 확산하는 등 상생과 연대의 노동·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부산청·광주청 등 지방관서에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취업인센티브 운영, 체계적인 인력양성 지원 등 협약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

- 노사가 상생·연대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노동개혁 핵심과제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 이에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등 알권리를 최대한 강화하며,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민주적·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우선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자율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미제출 노조에 대해 2주간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며, 그럼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1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달 여 만에 총 337건이 신고되었으며(~3.5),
노·사를 가리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불법·부조리 사례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 지방관서장은
접수된 건에 대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엄정 조치하는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3월 중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조 회계를 공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지방관서장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이번 만큼은 반드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엄정한 법 집행자, 공정한 갈등조정자로서
현장의 노·사 의식과 관행 개선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에서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 오늘,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작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를 토대로 노·사, 전문가, 그리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 개편은 7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온 근로시간 제도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며,
 -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시간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가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 임금체불, 공짜야근은 대표적인 착취고 범죄입니다.
 -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성공도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을 뿌리뽑는 데 달려있는 만큼,
 -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획감독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상황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

- 1월 기준 취업자는 41.1만명 증가하였으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미충원인원이 18.5만명에 달하는 등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8월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 상시 구인난을 겪는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고,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업종을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좀 더 현장 체감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처가 협업하여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는 업종·지역별 맞춤형 대책에 집중하는 만큼, 지역 단위에서의 집행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지방관서장 여러분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1년 365일 당부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 봄에는 겨우내 주춢했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플림에 따라 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3월부터 지난 겨울철 대비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장에서 우리가 한발 먼저 움직이면 한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 수립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본격 이행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기업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령 등 산업안전 관계 법령도 정비합니다.
 -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 전반에 안전의식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인 만큼,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상에서 안전활동을 지원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지역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지방관서장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노·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오늘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로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인 것처럼,
 - 그간 우리도 본격적으로 노동개혁의 닳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항해를 해야 합니다.
- 지난 1월 점검회의에서도 강조했듯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여러분들의 현장 행정이 국민 신뢰와 직결됨을 잊지 말고,
온라인 신고센터, 민원 등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현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분투합시다.
 - 여러분 고맙습니다.